

KIA 타이거즈 4년만에 '가을야구' 보인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24일 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삼성	69	43	0	0.616	0
2 NC	65	44	2	0.596	2.5
3 두산	61	49	0	0.555	7
4 넥센	59	53	1	0.527	10
5 KIA	55	55	0	0.500	13
6 한화	55	58	0	0.487	14.5
7 롯데	53	60	0	0.469	16.5
8 SK	50	57	2	0.467	16.5
9 LG	50	63	1	0.442	19.5
10 kt	39	74	0	0.345	30.5



KIA와 한화의 경기가 열린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가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KIA는 주말 전개된 5위 싸움에서 1승1패를 기록하면서 1.5게임차로 한화에 앞서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위로 와일드카드 잡을 듯

6위 한화와 1.5 게임차

남은 경기 5할 승률 관전



‘호랑이 군단’의 가을잔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지난 주말 챔피언스필드는 KIA와 한화의 ‘5위 전쟁’으로 뜨거웠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KIA)과 특급 외국인 선수 로저스(한화)가 맞붙은 22일에는 2만2000석이 가득 차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매진이 이뤄졌다. 이날 경기는 로저스의 완봉승으로 마무리됐지만 23일 KIA 주장 이범호가 부진을 만회하는 결승 홈런을 쏘아 올리며 9-4승을 장식했다. 이 승리로 KIA는 반 경기차 뚫아낸 한화와의 1.5게임차로 밀어내면서 5위 수성에 성공했다.

사상 첫 10구단 체제가 된 올 시즌에는 5위까지 가을잔치에 도전할 수 있다. 5위는 4위 팀 안방에서 2연승을 거둬야 준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 첫 경기에서 패하거나 비기면 두 번째 경기 없이 4위팀이 곧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55승 55패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KIA에게는 34경기가 남았다. 후반기가 장 뜨거운 질주를 하고 있는 KIA가 ‘이슈의 팀’ 한화(55승58패·0.487)와 5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3.5게임차 밖에서 롯데(53승60패·0.469)와 SK(50승57패·0.467)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후반기 페이스를 보면 KIA의 5강행에 힘이 실린다. 한화가 불펜진의 붕괴 속에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KIA는 불펜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외국인 투수 에반이 중간에 배치되면서 마무리 윤석민의 부담이 줄었다. 뒤늦게 어깨가 풀린 윤석민은 두 경기 연속 2점차 승리를 지키는 등 지난주 세 경기에서 4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안정감을 더했다. 마운드의 신·구 조화도 반갑다.

최영필·김광수가 노련미로 위기의 불펜을 막는 동안 부진했던 좌완 심동섭과 ‘92 듀오’ 한승혁·홍건희가 상승세를 타며 베테랑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티타울(0.254) 플짜’의 집중력도 눈에 띈다. KIA는 계속된 타격 부진에도 무려 7번이나 끝내기 승을 연출하면서 리빌딩 해에 2011년 이후 4년 만의 가을 잔치 꿈을 꾸고 있다. 외국인 선수 필이 3차례 끝내기 소를 펼쳤고, 이흥구·김민우·김원섭·백용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보여주는 등 매 경기 새로운 주인공이 5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상대전적을 통한 단순 계산에서도 KIA가 유리하다. KIA는 올 시즌 4승10패로 가장 열세를 보인 넥센과 두 경기만 을 남겨두고 있다. 7승3패로 우위를 점한

SK와 가장 많은 6경기가 남는 등 상대전적에서 앞선 팀들과 앞으로 21차례 더 만난다. 한화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7승5패로 KIA가 앞선다. 반면 한화는 9승6패를 기록한 kt와 최준만 남겨두는 등 31경기에서 상대전적에서 앞선 팀과 7번의 대결만 예약돼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좌완 유창식이 지난 23일 엔트리에 등록됐고 일본에서 재활 치료를 했던 김주찬도 22일 귀국했다. 최희섭 역시 부상에서 벗어나 2군에서 감을 잡고 있는 등 전력의 플러스 요인도 있다.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 속에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KIA가 가을 잔치를 향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채용 특혜 논란

설립준비단 4명 특채 예정

아시아문화원의 채용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채를 진행. 최근 서류·필기시험을 통과한 139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공채에는 현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230여명)들이 대부분 응시했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 개관 콘텐트 구축을 맡아온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업무를 승계할 조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해온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이 대거 응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개발원 특정 직원 4명이 아시아문화원에 특채될 예정이다. 이들은 특채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채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아시아문화개발원에 파견을 요청해 선발한 직원들로, 현재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에서 이번 공채와 문화원 조직구성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은 이에 대해 “개발원 직원들을 공채전형에 응시하도록 해놓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화전당측은 공공법인 설립과정에서 채용기관의 재량으로 설립준비단 인력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관례라는 입장이다. 대외비에 속하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개발원 조직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개발원 직원들을 부득이하게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대외비를 다루는 업무성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설립준비단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일부 업무를 정부조직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젊은 축제기획자 광주에 모인다

아시아문화개발원·전남대

‘아틀리에 2015 광주’ 개최

전 세계 20개국 축제기획자들이 광주에 모여 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남대학교는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남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 일원에서 전세계 축제기획자 40여 명과 함께 하는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 2015 광주’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예술과 예술가라는 축제의 핵심요소에 초점을 두고 축제 기획경영

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장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006년 시작한 ‘젊은 축제기획자를 위한 아틀리에’는 그동안 영국, 폴란드 등 전 세계 8개국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광주는 싱가포르(2011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광주 행사에는 전 아틀리에/멜버른 페스티벌 예술감독 로빈 아처(Robyn Archer), 전 트랜스아메리카 페스티벌 예술감독 마리 헬렌 팔코(Marie-Helene Falco)씨 등 기획자들이 멘토와 강연자로 나선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젊은이들 몰린 전북 양식장...완도 망남마을 귀어 청년 북적

55가구 중 21가구 30·40대

고소득 보장에 고향으로

완도의 한 어촌마을이 귀어(歸漁) 청년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다른 농어촌은 고령화로 고스낙하지만 이 곳은 예외다. 모두 전북 덕분이다.

주목받는 마을은 완도읍 완도타워 뒤편에 자리 잡은 망남마을. 무려 21가구가 도

시에서 어촌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마을 전체에 생기가 감돌고 있다.

마을에서 전북양식을 하는 55가구 가운데 21가구는 도시에서 귀어했다. 나이는 30~45세까지로 청년가구다. 연간 1억원이 넘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북 양식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어촌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고향으로 내려온 오지수(33)씨는 귀어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망남마을 앞바다에 전북가두리 양식장 800칸에서 연간 20t의 전북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전북양식을 하면서 차츰 전북 유통업과 전북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전북영어로조합법인 대표를 맡아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북 도소매 유통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는 연간 250여t의 전북을 파는 등 청년 사업가로 성장

했다.

최근에는 부인과 함께 전북장조림, 전북고추장, 즉석 전북죽 등을 자체 개발해 소비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북 성장과정 보여주기, 전북먹이 주기 체험, 즉석 시식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완도군 귀어자는 전남 전체의 25%로 가장 많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윤장현 시장, 금호산업 인수 합리적 결정 촉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의 최종 인수자로 주당 3만7564원인 6503억 원을 제시<광주일보 24일자 1면>한데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윤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금호산업은 광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지역의 대표 기업이자 지역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금호산업 인수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시

민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채권단과 기업이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호산업 채권단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제시한 6503억원보다 3715억원이나 더 많은 1조218억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인수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백암사C인근 2층공장
대지9,341㎡ 건물2,031㎡ 건물상태★★★★★
유제품제조공장 물류창고위치최적
감정가41억5천 최저가11억9천 감정가의29%
-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인근 카페거리
대지754.6㎡ 건물1653㎡ 지하1층~지상4층(E/V있음)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상권좋은 수익성★★★★★
감정가16억2백 최저가11억2천 감정가의70%
- ★북구 중흥동 대로변(병원, 사옥적합) 상업지역
대지396㎡ 건물1,750㎡ 지하1층~지상5층
사옥, 학원, 오피스텔용도★★★★★
감정가13억7천 최저가6억1천5백 감정가의44%
- ★동구 학동 지하2층~지상5층 근린주택
대지456㎡ 건물1802㎡ 전대병원앞은편 도로접
양·한방병원 위치, 접근성★★★★★
감정가23억2천2백 최저가16억2천6백 감정가의70%
- ★북구 두암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주택
대지198.2㎡ 건물512㎡ 접근성★★★★★
해어, 의류매장 모든업종가 시내버스승강장부근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3억1천9백 감정가의8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잔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